

삶 · 죽음 · 깨달음의 몸짓

손재현무용단 창작발레 '제망매가' 12월 12일 한국문화의집서 초연

죽음과 삶, 누이의 죽음을 통한 인생무상. 손재현무용단(단장 손재현)이 선보이는 창작발레 '제망매가(祭亡妹歌)'에서 그 해답을 춤으로 보여준다. 12월 12일 오후 7시 한국문화의 집-KOUS 전통예술공연장(02-567-6978)에서 초연되는 '제망매가'는 신라시대 월명대사의 향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번 작품은 전도재를 시작으로 누이와 속세에서의 인연을 기린 과거, 누이의 죽음을 직면한 현재 그리고 서방 정토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는 미래로 나누어 무대를 구성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이의 죽음을 앞에서 동생 월명 스님이 느끼는 슬픔과 허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스님이 느낀 감정은 해탈을 향한 스님의 정진 과정에서 깨달음의 밑거름으로 변화한다. 불도를 닦아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을 누이를 만나겠다는 그의 의지는 격렬한 몸짓으로 승화된다.

제망매가에서 드러내는 불교적 생사관은 인간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불교적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도록 한다. 죽음과 삶이 뒤섞인 인간세계에서 죽음과 삶의 갈등을 항상 겪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도, 그리고 그가 겪는 혼란과 삶에 대한 허무감도 무용수들의 손짓 몸짓을 따라 모던댄스로 표출된다.

손재현 교수(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담당)는 "이번 작품은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양의 클래식보다는 아쟁 등 한국전통 음악을 많이 사용했고, 동생이 누이의 죽음에서 갈등하는 장면과 저승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장면이 역동적인 춤사위로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망매가'의 연출은 前 키로프발레단장 에브도키모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가, 안무는 손재현 교수가 맡았다.



제망매가에서는 한국전통음악을 배경으로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으며 두려워치고 나는 감나다 하는 말도 다 못하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의 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날아가지고 가는 것 모르누나 아아 미라칼에서 만나볼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련다. -월명사, '제망매가'



신라 월명대사 향가를 모티브로 제작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 한자리 불교적 생사관 역동적 춤사위로 승화

■ 제망매가 구성은?
전도재-신라 서라벌 사천왕사(四天王寺)에서 한 스님이 구슬뜨게 피리를 불며 재를 올린다.
1막 속세의 인연-소년과 소년의 누이들 서로를 의지해 살아간다. 소년의 대나무 피리는 그들의 구슬뜨기 삶을 음률로 들려준다.
2막 불도(佛道)를 위한 이별-소년과 누이들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은 소년은 출가를 결심하고 불도에 정진한다.

3막 재회(再回)-월명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법을 전도하러 나선 소년이 피리 불며 지나가는 초가 마을. 곡소리를 따라 들어간 집에서 누이는 이미 창백한 주검으로 누워있다.
4막 죽음의 불교적 승화-슬픔의 회한을 노래하던 월명은 미타찰(彌陀刹)에서의 누이와 만남을 위해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한다.

■ 원작 제망매가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스님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위망매영재가(爲亡妹營齋歌)'라고도 한다. 월명사가 죽은 여동생을 위하여 지은 노래로 형제를 한 가지에 난 나뭇잎으로 비유했다. 누이동생의 죽음을 나뭇잎이 가을철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먼지 간 누이에게 미타찰이라는 극락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려 달라는 내용을 노래했다. **김지연 기자** jgyang@buddhanews.com 사진제공=손재현무용단

진철문 조각展-생각하는 사람들

11월 15일부터 한달간, 용인 한국미술관

선(禪)이 깃든, 생각이 살아 숨쉬는 조각을 만들어 내는 진철문의 조각 전시회 '진철문 조각展-생각하는 사람들'이 11월 15일~12월 15일 용인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마지막 전시로 기획된 '진철문의 조각세계'의 대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들'. 조각이 사유를 드러내는 방편이자 구구하다 했던 진철문의 사상을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선조각(禪彫刻)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한 그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사람'은 돌 조각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유의 표상이자, 조각가 자신의 사유이기도



하다. 미술평론가 김영재씨는 "진철문의 조각은 사유 자체를 타파한다는 생각과 말이 끊어낸 간화선과 같은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세의 오랜 화두였던 여자부처, 중생의 낮은 세계로 내려온 부처 등을 만날 수 있다. (031)284-0471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한 확장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주요 브랜드: dbx, AKG, MACKIE, CROWN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근무처: 본인 거주지. 문의: 050-5244-0108

소중만 인연을 위한 정성 고동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든...

산수 조청 1.2kg

- 산수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이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수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동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수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 않는 산수 참옷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향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비롯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찬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x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 조청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초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3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5년 12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계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배 변형자세. 뜨고그고 않은 자세, 장래자세, 일선선 자세, 행선, 좌선

◆ 호흡법

-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헐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계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용하여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가슴고 깊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노핀, 토포민 등의 쾌적·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에서 α 파와 감정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누가 잘 쉬는 법. 짐을 누가 잘 짊어지는 법」 참고 배움 (영진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도덕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명상, 독경, 요가 (킴푸트 - 수협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끝에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체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원인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배·허리 냉증, 무릎통, 디스크, 안구 건조, 피부기침, 이토키,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에 참고 바람)

◆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견스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